

## 권율도원수 제422주년 이치대첩제 봉행

“군량확보를 노리고 호남의 관문인 배티재를 침략한 1만의 왜적을 1천5백의 군사로 섬멸한 임진왜란 최초의 육전 승전지”

지난 8월 26일 화요일 10시에 충남 논산시 진산읍 묵산리에 소재한 이치대첩지 권율도원수 충장사 사당에서 충남 금산군이 주최하고 이치대첩기념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이치대첩(契峙大捷) 422주년 기념행사”를 충남도의원, 금산군의원, 금산군 기관단체장, 진산읍관계자와 안동권씨 후손등과 군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현관 박동철 금산군수, 아현관 김옥수 금산군의회회장, 종현관 박찬용 진산향교 전교, 대축 신정교씨, 김성렬씨, 알자 한명구씨 등에 의해 제례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제례는 전례, 초현례, 아현례, 종현례에 이어 음복례와 망요례가 끝난 후 권문(權門)은 권경석 대종원사무총장부터 대진, 금산종친회장, 지역기관장 군부대 장병순으로 헌화 분향이 진행되었다.

제례가 끝난 후 문화관광과장이 경과보고에서 이치대첩비는 1886년 금성면 상가리에 세웠으나 일제가 폭파하여 1963년 진산면 거주모인 흥산사에서 임야 1ha에 권율장군 후손과 금산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오대산 자락 복지골 명당자리인 현위치에 재건립하였다.

이치대첩비는 1984년 5월 7일 충남 도문화재 자료 제25호로 지정되었고, 이치대첩비와 사당 등은 2000년 9월 20일 충남도 문화재 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어서, 박동철 금산군수는 인사말에서 이치대첩은 광주목사 권율공께서 호남으로 쳐들어오는 왜군을 격멸코자 이곳에 진을 치고 장병들을 돌리, 필사의 정신으로 왜적을 격퇴시킨 최초의 승전지로서 이치대첩의 역사적 고증을 거쳐 국가 사적비로 지정을 받아 이 지역 금산을 성역화(聖域化)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 군의회의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 부대행사로, 금산문화예술포럼원에서 모듬북공연 등이 있었다.

이치대첩은 1592년 임진년 왜군이 조선반도를 쳐들어오자 선조대왕이 권율장군을 광주목사에 임명하고 호남지역을 사수토록 하였다.

권율장군은 정충신을 발탁하여 진안의 웅치에서 왜적을 패퇴시켰으며, 1천명의 의병을 모집하고 관병을 합하여 1,500명을 이끌고, 고비야가와 다기카케(小早川隆景)가 이끄는 왜군 1만여명이 쳐들어올 지점인 배티재(금산과 전주로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해발 350미터 고도 70도의 좁은 고갯길)에 권율장군은 좁고 험한 고갯길 양편에 진지를 구축하고 목책과 녹채(대나무를 세워 사슴 뿔처럼 만든 울)과 여장(성위에 낮게 쌓은 탑)등을 설치하고 “오늘의 싸움은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으며, 죽음만 있을 뿐 삶은 없다.”라고 결연하게 명령하였다.

이치전투는 황진장군을 선봉장으로 아침에 전투가 시작되어 성채안에 들어오기까지 치열한 전투와 육박전을 감행하여 오후 3시경에 적을 물리쳤다. 적은 5시에 재공격이 있었으나 다시 격퇴하였고, 권율장군의 명령에 따라 미리 영정곡에 기병장 권승경부대를 매복시켰던 우리 병사에 의해 패주하는 왜군이 거의 전멸됨으로써 1,500명의 병사로 1만여명의 왜군 주력부대를 무찔러 호남의 곡창을 사수하였다.

권율도원수가 이치재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 8월26일 10시 진산면 충장사에서 김성렬전례의 창출에 따라 이치대첩 기념제가 봉행되었다.



△ 초현관 박동철금산군수와 축관 신정교씨의 독축



△ 초현관의 음복례



△ 침제완: 권경석사무총장, 권호준대진종친회장, 권희철백제문화회장, 권경관금산종친회장



△ 한명구일자의 현관인례

육전에서 전세를 뒤바뀌게 되었고 이순신장군의 한산대첩이 있을 수 있었으며, 이후에 권율도원수는 독산성 세마전투의 승리에 이어 행주대첩에서의 승리로 왜군을 섬멸시킴으로써, 임

진왜란을 종식시킨 우리나라의 큰 영웅이 아닐 수 없다.

### ◆ 도원수 권율의 이치대첩 상황

- 이치는 어떠한 곳인가?  
▲이치(契峙)는 해발 350미터의 고개로 산돌 배나무가 있어 배티재라 불리고 한자로 契(배나무) 峙(우뚝 솟은 지)로 표기되어 왔다.  
▲금산에서 전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통로로 양옆에 거의 70도에 달하는 험한 산이 있는 좁은 고갯길임.
- 왜군은 왜 전라도를 침입하려고 했는가?  
▲왜군은 조선을 침략한 후 북상하는데 필요한 군량을 현지에서 조달하고자 곡창지대인 전라도까지 점령하려고 하였다.
- 왜군의 이동경로는?  
▲제6군 고비야가와 다기카케(小早川隆景)는 전라도 점령의 특명을 띄고 김천으로 내려와 장호현이 방어한 관군을 격파하고 황간, 영동을 거쳐 금산 제원에서 충민공 권중 군수를 패사(敗死)시키고 금산에서 조현의 칠백의병도 전멸시킨 여세를 이치를 통해 전주를 진입하고자 하였다.

- 도원수권율의 대비책은?  
▲도원수 권율은 1,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치에 주둔하면서 왜군의 진주침입을 저지코자 편제를 정비하고 군사훈련을 독려하였으며, 동시에 이치에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고갯길의 양편 산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 시설 (목책, 木柵·말뚝을 박아 만든 울, 녹채 鹿藿·대나무를 세워 사슴 뿔처럼 만든 울, 여장 女牆·성위에 낮게 쌓은 탑) 등을 설치하였다.

- 이치대첩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小早川隆景을 주장(主將)으로 한 왜군은 7월20일 아침 7시경부터 이치를 공격하기 시작.  
▲도원수권율은 “오늘의 싸움은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으며, 죽음만 있고 삶은 없다.”라고 힘써 싸울 것을 독려했었다.  
황진장군을 선봉장으로 한 이치전투는 아침에 시작되어 왜군이 성채 안에 들어오기까지 치열하였으며 적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총포가 미치지 않게 되자 육박전을 감행하여 오후 3시경에 적을 물리쳤다.

- ▲ 잠시 소강상태가 있었으나 왜군은 5시경 재공격을 개시하니 아군은 더욱 용기 백배하여 왜군을 격퇴시켰다.  
▲도원수권율은 전라기담계 지형을 이용하여 숫적 열세를 극복하고 왜군을 패주시키고 미리 영정곡에 매복시켜 놓았던 기병장 권승경(權升慶)부대는 패해 오는 왜군을 기습하여 또 한번 크게 전멸시켰다.

- 이치대첩의 의의  
▲도원수권율은 1,500명여명의 군사로 1만여명에 달하는 왜군 제6군 주력부대를 궤멸시켜 호남곡창을 사수하였다.

-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육전 3대 대첩 중 최초의 승전지로 임진왜란 초기 육전에서의 전세를 뒤바꾸는데 크게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권경일 기자>

## 닭실과 맛질의 영화가 오문을 빛내다 (2)

忠定公 諱 機 (1)

### 유서깊은 닭실(酉谷)마을

봉화읍 유곡리로 들어가니 고색창연(古色蒼然)한 한옥마을이 즐비하게 펼쳐져 가슴을 설레게 한다.

#### 청암정(靑巖亭)

中宗 26년(1526)에 충재선생이 창건한 정자로서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큰마을 宗老 서편에 위치하며 사적명승(史蹟名勝) 제3호로 보존되고 있다. 거북처럼 생긴 큰바위 위에 세로 14尺, 가로 20尺의 규모로 춘양목으로 지었는데 주위에 연못이 둘러 있고 뜰에서 亭子까지는 돌다리가 놓여 있으며 향나무, 노송, 느티나무, 버드나무들이 짝 차 있고, 바위 사이에는 철쭉과 단풍나무가 자생한다. 퇴계 이황(李滉), 백암 김공(金功), 백담 구봉령(具鳳齡), 관원 박계현(朴啓賢), 습재 권벽(權璧權璧), 번암 채제공(蔡濟恭), 높은 이광정(李光庭)의 현판 글이 있으며 미수 허목(眉叟 許穆)이 88세에 쓴 마지막 글씨 절필(絶筆) 전자체(篆字體) 현판 ‘청암수석靑岩水石’ 4자가 있다. 봄 철쭉, 여름의 매미소리, 가을 달, 겨울 눈꽃은 청암정의 운치를 더하고 있으며 방송곡 연속극의 주 무대로 자주 등장한다.

#### 석천정사(石泉精舍)

닭실의 시냇물을 따라 굽이 돌아가면 조선 중종 30년 乙未(1535)에 충재선생의 장자 청암공 동보(靑巖公 東輔)가 先志를 계승하여 창건한 정자로서 청암정과 함께 사적명승 제3호로 보존되고 있다. 간가(間架)는 3칸, 구조는 춘양목으로 세로 12尺, 가로 14尺, 익랑(翼廊)이 각 10尺이며 기와는 문화적 작품이다. 주위는 기암절벽(奇巖絶壁)과 노송(老松)으로 장관을 이루고 수정같이 맑은 물은 계곡을 감돌아 흘러 누각을 수명루(水明樓)라 이름 하였으며 정자 뒤뜰에서 오죽이 자생하고 바위 사이에는 샘이 있어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다. 풍광은 가히 신선들이 노닐아래 기암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듯하고 맑은 물은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한다.

#### 삼계서원(三溪書院)

봉화읍 삼계리 174번지에 있으며 2001년 문화재 자료 417호로 지정되어 있다. 충재(中齋) 權機先生을 配享한 서원으로 宣祖 21년(1588)에 건립하여 묘호(廟號)를 충정사(忠定祀)라 하고 위패를 봉안하여 오다가 현종 元年(1660)에 삼계서원으로 사액되었다. 석천계곡의 맑은 물과 물아천(物野川)이 합수하는 지점으로 경관이 빼어나며 봉화유림(奉化儒林)의 본거지이자 1905년 구한말을 사의병(乙巳義兵)의 始發地이기도 하다. 고종 8년(1871)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1960년에 복설하여 春秋로 제향(祭享)하고 있다.

#### 보물(寶物)

충재선생의 유물은 매우 많았으나 실전되고 현재 보물 제 261호인 <中齋日記>와 262호인 <근사록 近思錄>을 비롯해 896호인 <회적회고錄> 15종 18책, 901호인 ‘고문서’ 15종 274책, 902호인 ‘유목遺墨’ 8종 4점 등 482점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보관하였는데 정부는 2007.9.15 청암정 뒤에 새로 유물관을 크게 신축하여 준공하였다. 이는 다만 종택에 보관된 것뿐이며 사기에 보관된 지손들의 유물도 상당수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 경북 봉화읍 유곡리 닭실마을 전경



△ 청암정 : 봉화읍 유곡리963 (사적명승 3호)



△ 석천정사 : 봉화읍 문수로 삼계리 38-42



△ 삼계서원 : 봉화읍 삼계리 174 (문화재자료 417호)



△ 보물루 : 봉화읍 삼계리 174 (문화재자료 417호)



△ 충재 박물관 : 봉화읍 유곡리 963

## 안동권씨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

안동권씨 6·4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를 위하여 대종원은 선출직공무원, 기업회장, 당선지역의 종친회장, 청·장년회장이 한 자리에 모여 안동권씨의 발전과 화합을 이루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2014. 9. 29(월요일) 18시

장소 : 육군회관(용산구 용산동 국방부청사 서쪽) 전화 : 02-793-4191

대상 : 당선자,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국영기업회장, 해당종친회장 및 청·장년회장, 대종원총재, 상임부총재

안동권씨대종원 총재 권 정 달  
청·장년회장협의회 회장 권 계 주

## 安東權氏宗報 | 종사 : 송조이념확립·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사회유리배양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경석 인쇄인 권영웅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우 :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현로 18 (3층)  
우 :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 (054) 854-2257  
태사묘 연락처 : (054) 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원

편집위원	권계동, 권오복, 권혁재, 권승세
기 자	권영건, 권희세, 권경일, 권오인, 권범준
자문위원	권종달, 권인호, 권영한, 권영성, 권오창, 권태현

예금주 및 계좌번호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076-02-247343	종보사(개인독자) 우체국 : 종보사 010108-01-000369
------------	---	--------------------------------------